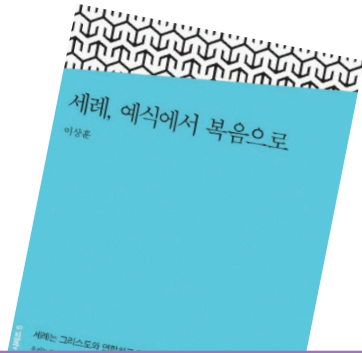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로 뻗어가는 가정 롬 10:15 고전 9:16 행 1:8
2024년 주님의교회 표어



481
2024.3.17.

오늘의 말씀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_ 요한복음 20:19-20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2 | 하나님 백성의 선교 요약 | 6-7 | 청년부 대만아웃리치 | 10 | 교회사용설명서 |
| 3 | 사역별 추천도서 명문장 | 8 | 윤형주장로초청집회 | 11 | 십자말씀이 |
| 4-5 | 유소년숲 겨울성경학교 | 9 | 겨자씨인도자수련회 | 12 | 교회소식/설문조사심층분석 |



주님의교회 예배당 건물의 이름은 ‘김마리아회관’이다. 한국의 교육자요 독립운동가였던 김마리아 여사를 기념한 건물이다. 1892년 황해 송화에서 태어난 김마리아 여사는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 당시 2.8 독립선언에 참여했다. 조국으로 돌아와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 수감된 후 그해 8월에 예심종결 결정으로 풀려난 김마리아 여사는 이후 모교인 정신여학교 교사로 돌아와 항일여성운동을 하며 신학 교육에도 힘썼다. 1943년에 고문으로 얻은 병이 재발하여 1944년 3월 13일에 평양기독병원에서 사망했다. 2024년 3월 13일은 김마리아 여사의 서거 80주기가 되는 날이다. ‘김마리아회관’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님의교회 교인들은 김마리아 서거 80주기 영상을 보며 그의 삶을 돌아보길 바란다.



* 1면 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글이든지 1면을 채울 글을 보내주시면 편집회의를 거쳐 정성껏 1면을 채워겠습니다.

우리 신문은 자연보호를 위해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책소개 시리즈
하나님 백성의 선교⑫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백성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며, 온갖 가능한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의 본질이라고 즐겨 말한다. 우리는 대부분 ‘복음’이라는 옛 단어가 ‘좋은 소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나쁜 소식이 넘쳐나는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은 “성경대로”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메시지는 구약 성경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읽으며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또한, 복음과 전도에 대한 신약의 어휘는 실제로 구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복음’이라는 말은 사실상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전달된 좋은 소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벨론 포로들을 위한 좋은 소식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 바벨론 유수와 그로 말미암은 땅과 성읍, 성전, 희망의 상실 - 이 일어났던 이스라엘 역사 당시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떤 좋은 소식을 들어야 했다. 이사야 40:9, 41:27, 52:7, 61:1 각 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바사르’이다. ‘바사르’는 좋은 소식을 전하거나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던 말이다. 52장 7절의 세 단어가 전령이 지닌 좋은 소식을 구성한다. “평화!” “좋은 소식이에요!” “구원입니다!” 마침내 그가 도성에 도착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친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 사 52:7) 하나님의 통치는 ‘샬롬’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모습대로 자리를 잡으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는 ‘선’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이사야가 말한 대로 행동하실 때, 창조세계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말씀하신 모양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구원’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들을 노예 상태로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의 종식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 사 52:8)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백성에게로, 그분 자신의 백성과 함께, 그분의 성으로 돌아오신다.

(하나님이 구속하신다 - 사 52:9-10) 한 사람의 전령이 말하는 복음에서 출발한 노래는 파수꾼들이 부르는 작은 합창으로 번지고 땅 끝까지 퍼져 나갈 것이다. 그 노래들의 주제는 통치하시고 돌아오실 뿐 아니라 구속하시는 분, 주 하나님 그분이다. 그것은 위로와 구속 즉, 위로받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소식

(예수님은 그때도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그분 안에서 정말로 구현된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방식으로 인간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통치는 평화를 만들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해한 이들 가운데서 발견된다.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좋은 소식으로, 그것은 우리를 위한 좋은 소식이 될 모든 것을 성취하는 기초가 된다. 복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좋은 소식이다. 이 소식은 또한 세상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은 그때도 지금도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이다. 우리에게 오셨고, 처음 약속처럼 돌아오셨고, 다시 오실 하나님,

자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그러나 회개하라는 부름에 응답하고 좋은 소식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다.

(예수님은 그때도 지금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 또는 ‘야웨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베들레헴에서 ‘주님의 팔’은 갈보리로 가기 위해 소매를 걷어 올렸다. 마침내 그는 갈보리로 가셨고, 거기서 정말로 주님의 팔을 펼치셨다. 즉, 세상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신 것이다.

바울이 이해한 좋은 소식

바울은 ‘복음’이라는 용어를 다양한 맥락에서 풍부하고, 활기차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므로 그것을 간단히 요약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복음은 성경에 비추어 본 예수님 이야기다) 바울에게 복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통로로 삼으신 나사렛 예수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바울의 복음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 나라로 구체화된다. 좋은 소식이란, 성경에 약속되고 규정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메시아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임했다는 것이다.

(복음은 구속받은 새 인류,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하나님께는 한 가족만 있다. 구약 시대에 그것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그 한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열방 출신을 포함한다. 이것이 복음, 곧 열방을 위한 좋은 소식이다.

(복음은 온 세계에 소통해야 할 메시지다) 이러한 좋은 소식을 감추어 두어서는 안된다. 복음은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하며, 들려지면서 그것은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야 한다. 이 메시지는 모든 열방에 선포되어야 한다.

(복음은 윤리적 변화다) 바울의 선교적 목표는 그저 전도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바울의 목표는 그 메시지를 받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 가운데 윤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었다. 바울은 구원을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행위로 이해하지만, 마찬가지로 단호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는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는다고 주장한다. 변화가 없는 곳에는 복음도 없다.

(복음은 변호해야 할 진리다) 복음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른 세계관이나 궁극적인 헌신과 명백히 대비되며 대립된다. 그러므로 복음의 종이 되는 데는 대가가 큰 투쟁과 영적 전투가 반드시 따른다. 복음은 용기있는 변호를 요청한다.

(복음은 우주를 변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역사와 창조세계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는 놀라울만큼 그 범위가 넓다. 복음의 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복음이 선포되는 범위가 되어야 한다.

요약

우리의 온전한 복음은 성경 전체의 깊은 우물에서 끌어낸 것이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선교는 구원하는 은혜에 대한 성경의 위대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언약 순종에 대한 성경의 변혁적인 요구 및 약속, 의가 거하는 새 창조에 대한 성경의 활기찬 희망과 비전에 걸맞도록 통합되어야 한다. 성경 전체에 비추어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복음 선포자로서 우리 자신의 선교적 역할을 보다 겸손하고 냉철하게 평가할 수 있다. 함글함글

사역별 추천도서 명문장
세례부

세례, 예식에서 복음으로

주님과 결혼했나요?

세례는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언약을 맺는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례사가 결혼의 의미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면, 세례식 설교는 세례의 의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 후에는 세례 문답을 합니다. 결혼 서약을 통해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할 것을 공적으로 서약하는 것처럼, 세례 문답을 통해 세례를 받는 지체들은 삼위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할 것을 공적으로 서약합니다.

주님의 프로포즈

(비포 앤 애프터)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영적 미혼자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후에는 영적 기혼자가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도덕적으로 탁월해지거나, 성령의 은사가 폭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미혼자에서 영적 기혼자가 되는 것은 분명히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변화를 확연히 구분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죄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도덕적으로 이해한다면, 회개는 '도덕적 개선'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죄를 '도덕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관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죄는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천동설의 믿음이 지동설의 믿음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지동설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 되시고, 그에 맞춰서 내가 변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담의 죄 :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함) 선악과 사건은 에덴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선악과가 탐나는 자신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사건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 버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가인의 죄 : 형제로부터 독립을 선언함) 죄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서 살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공동체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공동체를 떠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주님의 프로포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더 이상 영적 미혼자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라는 부르심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는 다른 애인(자기 자신, 죄)을 따라 살지 말고(회개), 주님과 함께 살자(믿음)는 프로포즈라 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형제들과 함께하는 교회로 살아가자는 부르심입니다.

세례, 관계를 바꾸다

(하나님의 선물제 사랑)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남다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물제 사랑 때문입니다.

(세례, 관계를 바꾸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거래

관계를 끝낸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거래 관계일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동거가 아니라 결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더 나은 짝을 고르지 않겠다는 것이고, 거래 관계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주님과 연합했다는 의미입니다.

세례, 옷을 바꾸다

(물세례 : 그리스도로 옷 입기)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김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즉 우리의 옛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에서 다시 올라오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즉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려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 새 사람은 내가 지어 입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 주신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와 물로, 또 물과 성령으로 새 사람을 지어 입혀 주신 것입니다.

세례, 가족을 바꾸다

세례는 주님과의 일대일 결혼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세례는 주님과의 연합일 뿐 아니라 교회와의 연합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통해 다시금 공동체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는 교회와의 관계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다스림과 치리는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는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교회의 '거룩함'과 '화평함'입니다.

세례, 사명을 바꾸다

이전에는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었습니다. 세대주가 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음으로 소속이 바뀌어 세대주가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명과 연합하게 됩니다. 주님은 의와 공도를 행하심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우리도 의와 공도를 행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안과 안식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혼자 노력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끄찍이 아끼시고,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율법은 우리에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으로 바뀝니다.

진정성 있는 세례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정성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세례는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행해야 할 사명입니다. 매번 세례식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자신의 세례를 다시금 확인하고, 세례를 받는 지체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함줄함울 / 세례, 예식에서 복음으로(이상훈, 좋은씨앗)

유소년숲
2024년 겨울성경학교

유소년숲 친구들의 “친구 만들기”

지난 1월 27일(토)~28일(주일)까지 EM에서, 2월 17일(토)~18일(주일)까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에서 <2024 유소년숲 겨울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EM은 "Loving each other like Jesus"라는 주제로 은혜를 함께 하고, 유년부/초등부/소년부는 FRIEND MAKER(친구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뻗어가는 비전을 품으며 그 어느 때보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부서에 맞는 말씀과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귀한 말씀 잔치였습니다.

유소년숲 위원장 장로님, 교육지원부, 각 부 부장님, 지도권사님, 그리고 기도와 기쁨으로 섬겨주신 모든 선생님들, 유소년숲 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유소년숲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모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상훈 목사 / 유소년숲

“주 안에서 기뻐해 짹짹! 주 안에서 기뻐해 짹짹!”

아침 냉수처럼 차고 맑은 목소리가 교육관 3층 복도에 울려 퍼진다. 뭔가 심상찮다.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가득하다. 잔망스럽게 바쁜 발걸음 소리, 손으로 조별 명찰 정리하면서 눈은 문 쪽을 향한 선생님들, 찬양단 친구들의 찬양과 울동이 자리에 앉은 친구들의 마음을 훔친다. 모인 이들의 부푼 기대감이 쿵덕쿵덕 들린다.

드디어 장로님의 기운찬 음성으로 대표 기도가 시작되고 목사님의 노련하신 진행과 말씀으로 여는 예배. 'Friend Maker'란 주제로 연 초등 5, 6학년 소년부 겨울성경학교인 것이다.

학교와 학원을 오가느라 스케줄이 바쁜 요즘 아이들이다. 교회 반 친구 이름 외우기에도 노력하지 않으면 두어 달은 족히 걸린다.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짧고 예배 역시 친구를 사귀기에 한정적이다. 더구나 코로나 시기를 거쳐서 친구들과 노는 법도 모르고 놀 장소도 시간도 한참 부족한 요즘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친구 사귀기(friend maker)’는 참으로 시기적절하고 간절한 주제라는 생각이 든다.

주제 활동으로 패브릭 펜으로 티셔츠 앞, 뒷면을 그들의 감성과 생기발랄 재능으로 장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년부 지킴이 부장님과 세 분 예배권사님 집사님이 준비하신 고시히카리 쌀밥, 얇은 독심 있는 한우불고기, 갯잎 절임, 목우촌 비엔나소시지, 김치와 샤인머스켓 꺾이는 친구들 허기진 배를 공략하기에 충분 매력적이었다. “선생님, 밥 더 먹을까요!” “비엔나소시지 떡볶이 더 먹을까요?” “샤인머스켓 더 먹을까요!” 이런 말 요즘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까? 사실일까? 되묻고 싶어진다.

각자가 디자인한 티셔츠를 입고 배불리 먹은 우리 친구들이 향한 곳은 다목적관 5층이었다. 70명의 아이들과 30명의 교사들이 2개의 기차가 될 때까지 가위바위보로 이어가는 기차놀이, 두 팀으로 나눠 뛰어다니 다방구, 아이들에게는 낯설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벌칙 있는 수건돌리기, 오징어 게임으로 부활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안대를 한 사람이 친구들이 돌아가며 스케치북에 그린 물건 이름 맞추기 게임, 말씀 속 숫자 맞추기 등 게임과 재미난 벌칙을 이어가고 10분 휴식 시간은 맛난 간식으로 땀을 식혔다.

‘성장’에 그 어느 단계도 중요치 않은 부분이 없다.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소년부 겨울성경학교가 좋은 프로그램과 안전사고 하나 없이 아이들 성장에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유소년숲을 포함한 교육부에 성도님들의 열렬한 기도 응원 바라본다.

윤경자 교사 / 소년1부

기도를 통해 함께함을 체험한 은혜로운 시간

어릴 적 유소년숲에서 자라난 저는 언젠가 교사로 섬길 것을 기대했습

니다. 선생님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커가는 저에게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셨고, 2024년 2월부터 유소년숲 초등1부의 찬양 담당 교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월 중에는 초등1부 보조교사로 참여하며, 내가 과연 초등1부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아이들은 나를 좋아해 줄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릴레이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안전한 성경학교가 되기를 먼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2월 17일부터 18일 초등부 겨울성경학교가 ‘Friend Maker’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성경학교는 초등1,2부 연합 새노래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과 울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시간은 새로운 학년, 반으로 올라와 아직 서먹했던 친구들이 함께 모여 박수치고, 즐겁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목사님 설교 후,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Friend Maker)가 되어주심을 고백하고, 나아가 우리가 사회에서 Friend Maker가 될 수 있도록 친구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찬양팀 친구들의 ‘순종의 고백’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수련회 자리에 함께한 모두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아직 초등부에서의 교사 생활이 서툰 저였지만, 기도를 통해 초등부와 함께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어 특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즐겁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되심을 깨달은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도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Friend Maker로 살아가길 기도드립니다.

황유정 교사 / 초등1부



유소년부
2024년 겨울성경학교

아직도 생생한 아이들의 목소리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의 어린 시절 성경학교를 기억해보면 신나게 찬양하고 율동하며,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 커다란 보드 판에 매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적은 큰 글씨를 선생님과 함께 예쁘게 색칠하고 꾸미며 활동했던 신나고 설렌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노방전도를 나가 새로운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신나고 기대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성인이 된 제 모습을 돌이켜 보면 전도라는 것의 의미가 퇴색될 정도로 저 뿐만 아니라 저희 세 자녀들, 유년부 친구들에게도 낯선 단어가 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유년부 겨울성경학교의 주제는 전도를 통하여 유년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으며 이 주제를 친근하고 낯설지 않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고민하며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바울의 전도여행에 대한 말씀을 전도사님께서 전하여 주시고, 10개의 조로 구성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한 미션으로 팀명과 구호를 정하였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인 용기, 소통능력, 체력, 판단력, 기억력을 키우기 위하여 청년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5개의 센터학습으로 구성되어 활동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각 코너의 센터학습을 통하여 신나는 게임을 즐기며 전도에 필요한 다섯 가지 능력을 흥미롭게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활동은 각자 전도의 대상자를 정한 후, 복음의 메시지를 적은 봉투 안에 예쁘고 정성스럽게 쿠키를 만들어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 모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겨울성경학교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성경학교가 끝난 지 한주가 지난 지금도 힘차게 팀명과 복음의 구호를 외치는 유년부 아이들의 목소리가 제 귀에 생생합니다. 보석 같은 이 아이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주님 축복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현주 교사 / 유년2부



예수님의 섬김을 배운 EM 어린이 겨울성경학교

크리스마스 행사 후 빠듯한 일정으로 2024 EM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VBS)가 어김없이 다가왔다. 규모가 크지 않은 부서라 큰 행사에 대한 부담이 무거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 부서 안에서 다 감당할 수 없기에 많은 인원을 타 부서에서 도움을 받아야 해서 리쿠르팅 및 여러 조율로 정지인 목사님은 몇 주째 전화기를 붙들고 계셔야만 했다. 여름에만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미국의 VBS교재를 사용하다보니 겨울에도 진행하는 우리로선 새롭게 각색하고 수정 및 보강해야만 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VBS를 다 년간 거치며 교사로서 마음이 그리 새롭지 않다는 점이었다. 마치 한 직장에 오래 다니며 감각을 잃은 메너리즘에 빠진 사람처럼 말이다. 하지만 수련회 준비는 더 오래 지체할 수 없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늘 준비한 것들에 새로워하고 신기해하며 해맑게 즐거워 해주고 행복해 해줬던 우리 초록 눈망울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잡고 기도로 힘을 모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번 성경학교의 제목은 Jerusalem Market Place(예루살렘 시장)였고 주제는 “Loving each other like Jesus”(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 - 요한복음 16:34)였다. ‘성극팀’, ‘무대 디자인팀’, ‘말씀팀’(Synagogue School), ‘공예 만들기팀’(Imagination Station), ‘간식 만들기팀’(Snack Station), ‘게임팀’(Village Playground)으로 나누어 각자의 섹션을 준비하였다. 우리가 맡은 섹션은 주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해 보는 ‘말씀팀’이었다. 예수님이 진행하신 최초의 세족식에 대해 배운 후 실제로 아이들이 한번은 예수님, 한번은 제자가 되어 서로의 발을 씻기는 시간이었다. 사전에 몇 차례 팀원 선생님들을 만나 머리를 맞대고 진행 대본을 짜고 동선을 고민하고 아이들이 즐거워 할 추가 요소들을 함께 고민해 보았다. 아로마 향도 세족 대야물에 추가하기로 하고 노랑 빛 조명과 촛대 그리고 초로 분위기를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거기에 고요한 백그라운드 음악까지 준비하기로 하였다. 더욱 욕심을 내 보았다. 이왕 할 것 예수님 시대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도록 모두의 의상까지 빌려보기로 결정했고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작은 선물도 준비하기로 했다. 우리 무엇에 홀린 양 코스트코 방문, 온라인 쇼핑 상품 비교, 해외배송 주문 등 정신없이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타 부서에서 빌려 올 수 있는 물건들을 모아 깨끗하게 닦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드디어 2024년 1월 27일 대망의 겨울 EM VBS가 시작되는 당일을 맞았다. 우리가 맡은 말씀코너로 온 아이들을 먼저 예수님 시절의 의상으로 갈아입혔다. 더운 사막지대에서 슬리퍼를 신고 다녔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닦아 주셨고 사실 그 일은 하인이 하는 일이었지만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셨기 때문에 손수 하셨다는 메시지를 전한 후 아이들이 서로의 발을 닦아 주게 했다. 진행하기 전에는 초등학교생들이라 진지하지 못하고 서로 간지럼을 태우며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까 조바심이 났지만 아이들은 생각 외로 잘 따라 주었고 진행은 순조로웠다. 친구 발을 닦아 주었을 때 기분을 물었을 때, “불쾌했어요”, “기분이 별로예요” 등을 말했고 친구가 발을 닦아 주었을 때 기분은 “간지러웠어요”, “재미있었어요”, “왕이 된 것 같았어요”, “부끄러웠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우리 교사들은 나름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른다. 아이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알 수 없고 그저 재밌게 발 닦은 시간만 기억할 수도 있겠다 싶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리라 기대하고 아주 작은 마음의 씨앗을 그 아이들에게 심어주었으며 그 정도가 이 섹션을 준비한 선생님들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거라 믿고 있다.

준비 내내 가졌던 마음의 부담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주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으로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 두려웠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식상한 마음에 새로운 에너지를 주시고, 도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보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넘치게 하셔서 이번 2024년 겨울 수련회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이영수, 김지은 교사 / EM



청년부
대만아웃리치

‘우리’ ‘다시’

‘정말 다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은 귀국 후 5일이 지나고 나서인 주일의 모든 일정이 끝난 후였습니다. 귀국 다음 날 바로 출근해야했던 직장인 청년들이 많았고 주일에는 각자 교회에서 맡아 섬기는 일들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2024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설 연휴기간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만 땅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왔던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익숙한 대만, 낯선 위리, 존재조차도 몰랐던 푸농족. 그런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그 피곤함을 뛰어넘을 정도로 더 크게 경험했던 단기선교의 은혜를 나누고자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무엇을 위한 팀이며 무엇을 하였는가

저희 선교팀은 13명의 청년과 2명의 교역자, 총 15명으로 이루어진 팀으로, 대만 동부 화롄현에 위치한 위리(Yuli)라는 지역에 5박 6일의 일정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위리 지역은 대만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으로, 저희 팀은 원주민 중에서도 푸농족의 초, 중, 고 학생들과 현지 지역교회를 위한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진행한 사역은 VBS(영어성경학교), 마을잔치, 특송, 주일예배 설교입니다.

어떻게 모였고 어떻게 팀이 되었는가, team building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

2023년 10월의 첫 주일 청년부 예배 때 대만 단기선교 영상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드디어 대만 선교 준비를 위한 카톡방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때부터 2월까지 함께하게 될 팀원들을 설레는 마음으로 확인하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22일 청년부 예배 때에 김성훈 선교사님과 현지인 교역자분들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교역자분들의 특송 순서가 있었습니다. 말씀 시간 가운데 현재 사역하고 계신 사역의 내용과 푸농족의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팀원들과 함께 잠시 뵙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첫 팀모임을 하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여권을 만들고 티켓팅을 하고 MT일정을 조율하는 등의 일들을 하였고 드디어 11월 11일, 첫모임을 하였습니다.

모든 팀모임이 그러했듯 첫 팀모임도 찬양과 기도회로 시작하였고, 이 모임에서 저희 팀은 각자 어떻게 선교팀에 지원하게 되었는지와 각오 및 기대하는 바들을 나누었고 선교팀 내에서 담당할 역할을 정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나누었던 내용은 하나님께 그동안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서로 마음 상하게 하지 않고 하나됨을 끝까지 이어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팀모임 일정을 정하였습니다. 팀원이 많다보니 팀모임 일정을 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함께 내렸던 결론은 매주 1회 이상의 오프라인 모임을 하기로 하였고 선교팀 모임에 우선순위를 두어 개인 일정을 최대한 비워두는 것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열한 번의 공식적인 팀모임과 두 번의 합숙, 그 외의 많은 프로그램별 준비모임이 가능하였습니다.

그 이후는 MT를 추진하였습니다. 밤샘에 가까운 긴 시간동안 QQ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깊게 나누고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QQ는 초대 청교도들이 교제를 위해 나누었던 질문으로 성장 과정과 힘들었던 시간, 가장 따뜻했던 기억,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을 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조금 더 하나가 되고 가까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이 MT에서 저희 팀의 팀명을 ‘WE;RE’로 정하였습니다.

We're "WE;RE" !!

저희 선교팀의 이름은 “WE;RE”입니다. WE는 ‘우리’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RE는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다시’선교의 현장으로 흘려보내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방문한 선교

지인 위리지역의 발음을 차용한 다소 재미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앞에 ‘We are’의 줄임말인 ‘We’re’을 붙이게 되면, ‘우리는 위리팀, 우리는 위리 자체’라는 비장함도 담을 수 있는 팀명입니다.

팀명을 정할 때 첫 팀모임에서 서로 나누었던 내용들을 팀명 안에 담고자 노력하였는데 감사하게도 간결하고 의미가 잘 담기면서도 의미전달이 확실한 팀명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리서치와 발제

초반의 팀모임에서 주력을 두었던 부분은 대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대만한국선교사 연합회가 집필한 ‘대만선교 가이드북’을 통해 대만의 역사와 선교에 대해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헤빈과 대한은 역사를, 주영과 수희는 종교와 선교를, 조수희 전도사님께서서는 생활파트를 담당하여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대만역사의 아픈 부분과 더불어 원주민들이 고산지역으로 밀려나게 된 과정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대만 곳곳에 많은 민간신앙들이 퍼져있어 거리곳곳에 신전과 제단이 많다는 사실과 또한 여러 신들을 동시에 믿는 종교적 특성으로 인해 선교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등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색과 숫자의 의미에 민감한 성향과 약자와 장애인을 존중하는 태도, 편의점에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만인들의 생활 및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식들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미리 알 수 있었기에 선교 가운데에서 만난 현지인들에게 다가갈 때, 더 자신있으면서도 배려있는 태도로 더 가깝게 나아가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준비과정

저희 팀이 VBS(성경학교)를 준비한 예상인원은 120명이었습니다. 예상인원이 많았기에 프로그램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준비물의 양이 엄청났습니다. 또한 영어성경학교로 기획하였다보니 언어에 관한 영역에서도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영어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부분도 쉽지 않았지만 현지 학생 중에서도 영어가 능통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을 것이기에 중국어 자막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였던 VBS프로그램은,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두 주제의 전달을 목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만들기와 스포츠, 이 두 프로그램을 축으로 하여 스킷 드라마와 성경 드라마, 찬양과 율동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팀원들 각자는 이중삼중으로 또 다른 팀들에 속해져 여러 가지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팀모임의 많은 시간이 프로그램 준비에 할애되었는데 활동 아이템 선정부터 재료 구입, 시뮬레이션까지의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각 활동팀별로 지도안과 예산안 작성, 아이디어 회의, PPT 및 교구 제작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만들기팀은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도매시장도 방문하고, 과자집 키트를 품절 전에 가까스로 구입한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스포츠팀은 언어적 한계로 인해 규칙을 최대한 간소화해야 하는 문제와 학생들을 어떻게 조 편성할 것인지의 문제, 게임의 난이도를 조절하면서도 그 가운데 주제의 메시지를 담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킷 드라마팀의 경우, 주중에 전화통화를 통해 계속해서 대사를 맞춰보았고 영어로 된 대사들을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도록 암기해야 할 뿐 아니라 VBS의 시작과 끝부분에 순서가 배치되어 있었기에 웃음을 주며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성경 드라마팀의 경우는 대본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전달해야 하는 내용의 영어 대본을 직접 작성하여 애니메이션에 더빙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전체 MC를 맡았던 유선 자매의 경우, 막대한 대사의 양으로 인해 준비 일정의 대부분을 대본작성과 수정, 암기에 사용하며 홀로 묵묵히 준비하였습니다. 데코팀은 다른 팀의 일정들에 밀려 회의시간을 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VBS장소를 아프리카 내지는 사파리의 느낌으로 꾸미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어려움과 그 데코 물품들을 어떻게 현지로 가져가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이 과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완성도 높은 VBS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한 대로 일하지 않으신 하나님,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신 하나님!

원래 계획으로 스포츠 활동은 야외에서 진행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고 또 기도 부탁하였습니다. 활동 당일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땅이 젖어있어 실내에서 모든 활동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모든 팀원들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부족한 부분들 없이 서로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 교역자와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 덕분에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이 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더 크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When life is wild, God is good! (삶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주일에는 다른 교회로 이동하여 예배에 참여하였고, 현지어로 특송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찬양을 하였습니다. 예배 중간에 현

지 성도들과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교제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예배에서 우리 팀의 이종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성경학교의 주제 말씀이기도 했던 나훔 1장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선하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VBS를 막 끝낸 터라 마음에 더 깊이 와닿았고 감동이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난 후 현지 교역자들과 피드백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VBS를 총괄하셨던 현지 목사님께서 교회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해오셨는데 이번 VBS가 큰 기폭제가 되었고 현지의 교역자들이 이 일을 계기로 함께 하나 되어 힘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원래 교회에 나오지 않던 학생들이 교회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는데 저희 팀원들이 같이 들어가자고 권유하여 VBS에 참여한 일도 있었다는 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보내는 선교, 함께하는 선교

대만에 가 있는 동안 청년부에서는 매일 아침, 기도제목을 공유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내의 많은 기도회에서 저희 위리팀을 위해 기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월에 있었던 선교후원행사의 준비와 진행을 위해서도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주었고 이 행사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물질과 기도로 함께 참여 해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번역의 과정, 데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청년들이 도움을 주었고, 출국 전의 청년부 예배 시간에, 모두 함께 위리팀을 위해 기도해주었던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공항까지 팀이 오갈 수 있도록 차량을 운전해주신 구태호 안수집사님과 팀을 격려하기 위해 대만에 방문하셨던 김광일 장로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뒤에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을 우리 청년부의 교역자분들께도 사랑과 감사의 말을 남깁니다. 김성훈, 류혜련 선교사님 가정과 현지 사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한, 함께 한 위리팀의 한 명 한 명,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

‘Whenever you lead me, I’m gonna follow. I’m trusting you, God. You are good!’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청년부로서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글을 마칩니다.

정대환 / 청년부 17기



안수집사회
윤형주 장로 초청 집회

신앙적, 문화적으로 알찬 프로그램

지난 2월 25일에 안수집사회 주관으로 윤형주 장로 초청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유명 연예인을 보게 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나무 식구들과 단체로 VIP석 맨 앞자리에 앉아 관람을 하였습니다. (예전 아내와 세시봉 관람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 관람을 하려고 하면 꽤 큰돈을 지불해야 했는데 교회 집회에서는 맨 앞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좀 의외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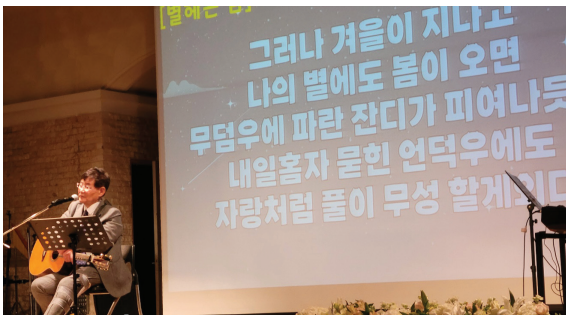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된 집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주옥같은 가요와 찬송가 그리고 중간중간 본인의 진솔한 간증 이야기로 알차게 채워졌습니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그는 대마초 소지죄로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간증 이야기보다 제가 더 감명을 받은 간증 이야기는 바로 미당 서정주 시인의 회심 이야기였습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은 불교재단인 동국대 이사장을 역임할 정도로 신심이 깊은 불교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미국에 사는 아들 집에 들렀는데 미국은 차를 운전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지내야 하는 곳이니 그저 무료하게 지내시던 미당 선생은 그곳에서 성경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감격에 겨워 “아들아!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구원에 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불교

와 같은 자력 종교는 비유하자면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끄덩이를 끌어올리며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 같다면 기독교는 예수님이 물에 빠진 사람을 끄집어내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비유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비교적 일찍부터 교회에 다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 없었는데 이어령 교수님도 그렇고 미당 서정주 시인도 그렇고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최고의 반열에 오른 두 분이 회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부르는 방법이 참으로 다양하고 신묘막측하구나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윤형주 장로님께 작곡한 노래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이라는 CCM이 있는데 저희 사랑나무 예배 중에 신나는 율동과 함께 부르는 노래랍니다. 그 노래를 라이브로 불러주시는데 얼마나 좋던지 저와 사랑나무 선생님들이 신나게 율동을 하며 따라 불렀는데 너무 흥에 겨워 무대 앞으로 나가서 율동을 보여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 안수집사회에 감사를 드리며 다음번 또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실지 기대가 큼니다.

염인호 안수집사



2024
겨자씨인도자수련회

은혜로운 ‘하늘양식’

성경에 나온 음식들을 다 찾아서 말씀과 합하고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구하고 재현하였다

혈몬의 이슬 - 레모네이드, 물고기 - 참붕어빵, 메추라기 - 메추리알, 만나 - 찹쌀과자, 무교병 - 크래커, 볶은곡식 - 호라산밀 빵튀기, 쓴나물 - 치커리, 엉긴 젓 - 요거트

은혜로운 ‘하늘양식’

첫날 도시락과 보리떡

첫날 간식 : 겨자씨 혈몬의 이슬 팔죽 계피 물고기 아몬드 건포도 꿀만나(찹쌀과자) 무교병 올리브오일 무화과 석류 메뚜기(식용을 조리) 건포도와자 포도 보리떡

둘째 날 : 간식시간이 짧아 쓴나물 메추라기 치즈 사과 네 가지를 꽃이에 꽃아 준비하고 올리브오일을 살짝 뿌려주었다. 또 다른 다섯 가지를 용기에 담아 드렸는데 내용물은 엉긴 젓 볶은 곡식 건포도 아몬드 꿀 그리고 개인용 필터원두커피를 드림

눈으로 한번 입으로 한번 마음으로 한번 먹는다.

함혜련 권사 / 소그룹지원부장



2024
겨자씨인도자수련회

겨자씨인도자 수련회를 마치며

본격적인 겨자씨 개강을 앞두고 이런 귀한 수련회를 허락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곤지암 소망수양관에서 3/8(금)부터 1박 2일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섬김을 듬뿍 받고 오니, 영과 마음이 충전되어 삶의 무게가 훨씬 덜 느껴져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런 좋은 수련회로 인도해 주시고 영의 사람들과 주님 안에서 교제하게 해 주시니 주님의교회에 감사를 표합니다. 말씀과 기도 집중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은 참 복된 인생 같습니다.

유독 기억에 남는 것은 첫날 밤 집회였습니다. 교구 식구들과 뜨거운 기도 가운데 함께 기도제목을 나누며 성령의 감동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공동체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레크리에이션 속에서 함께 깔깔 웃기도 했던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지체들과 새벽 3시까지 자리에 남아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혈액암에 걸려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치유 받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는 분의 이야기는 지금도 가슴에 남아 저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과 추억은 마음 가운데 계속 도전이 되어 제게도 주님께서 간증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빈 깡통이 되어 버린 저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첫사랑과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

겨 주시고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저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번 수련회 설교 말씀은 왜 올바르게 기도해야 하는가(행 4:23-31, 김화수 담임목사님)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행 10:9-15, 백용현 한빛감리교회 담임목사님)라는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직접 해결하시지 않으시고, 다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며 응답이 이미 예비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으며 이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 또한 발견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함을 들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수련회 동안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점은 간식 제공, 안내 등으로 자신의 은혜의 기회를 양보하며 보이지 않게 헌신하시는 소그룹지원부 섬김의 손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의 가정과 건강, 일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해 봅니다.

이번 1박 2일 겨자씨 수련회를 통해 주님은 제게 기도의 갈급함에 대해 도전을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으며, 한 분 한 분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내가 복음에 빛진 자임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누릴 수 있었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김관옥 집사 / 7교구

2024
겨자씨인도자수련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샬롬,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만물이 저마다 있어야 할 그곳에 평안히 자리하는 것이 ‘샬롬’의 인사말이라 합니다. 따스한 온기가 피부를 감싸며 꽃내음이 나는 걸 보니 봄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오고 있나 봅니다. 이 화목한 계절에 밖으로 나가 자연을 끌어안으며, 이웃과 마음을 함께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주님의교회 모든 가족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샬롬이 깨지며, 사랑과 화평이 오고 가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호승 시인이 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외침이 유독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는 그늘(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며 관심 가져주는 것이 ‘사랑’이라 합니다. 그늘이 되고 눈물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행하는 자야말로 아름답고 맑은 사람이라 말해줍니다. 이것이 어찌면 우리 겨자씨 공동체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닐까요? 저마다에게 맡겨주신 가족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동행하라는 요청일 것입니다. 아파하는 이에게 다가가 상처를 돌봐주며, 억울한 이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고통 상황에 처한 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우리 소그룹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사랑을 참으로 사랑 되게 하는 것은 햇빛이 아니라 그늘이라는 것을.
사랑을 참으로 사랑 되게 하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눈물이라는 것을.

비록 작은 겨자씨 한 알이지만, 이것이 커다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곧 삼십 배 육십 배 백배의 결실을 맺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돌봄을 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겨자씨에 돌아가 생명을 불어넣으며, 평안을 부여하는 사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히10:24-25a)”

편히 쉼 그늘이 되어주십시오. 눈물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장성식 목사

교회사용설명서

항존직 이해하기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항존직(恒存職)’이라는 말은 사회에서는 쓰이지 않아,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좀 낯선 명칭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에베소서 4:11)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의 역사 가운데 늘 존재하고, 또 작동해야 하는 직분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달리 말해, ‘교회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직분’을 의미합니다. 가끔 개인의 입장에서 보아 ‘영구직’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만 전혀 다른 의미인 것이지요.

주님의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헌법 제4장에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하며(제21조), 항존직은 장로·안수집사·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제22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시직은 교회에서 사역의 편의를 위해서 임시로 세우는 직분을 말합니다. 항존직과 임시직의 차이는 ‘안수’에 있습니다. 임시직에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전도사, 서리집사 등이 있습니다.

항존직의 명칭은 교파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권사’라는 명칭은 존 웨슬리에 의해 시작한 감리교에서 목사를 도와 교인의 가정을 돌보고 신앙을 격려하는 직분을 의미했으며, 권사가 담당하는 15명 정도의 교인 모임을 속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남자도 안수집사가 아닌 권사의 직분을 받습니다.

사용 방법

주님의교회에서는 교역자가 아닌 항존직은 전교인 투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선출 과정은 우선 교회의 여러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 항존직과 제직부서 부서장, 각 겨자씨를 인도하는 겨자씨인도자들의

추천으로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교인들의 사정과 자질, 그리고 교회에 대한 헌신과 수고의 정도를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을 통해 항존직이 될 만한, 이곳저곳에 숨어 있는 인재들이 발굴됩니다. 추천된 분들에 대하여 당회에서 공천투표를 실시한 후, 선출 정수의 2배수 인원을 항존직 후보자로 선정합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전 교인이 참여하는 공동의회의 직접선거가 실시되어 항존직을 선출합니다.

주님의교회 <선거관리규정>에는 항존직 가운데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을 갖춘 성도로서, 무흠 세례(입교)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본 교회에 등록한 지 10년 이상 된, 선거연도 말 현재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수집사의 자격은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남성 성도로, 권사의 자격은 교우들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는 여성 성도로, 무흠 세례(입교) 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본 교회에 등록한 지 5년 이상 된, 선거연도 말 현재 만 30세 이상 70세 미만인 분입니다.

관리법과 주의사항

이전에는 안수집사와 서리집사의 호칭이 안수집사는 ‘집사’로, 서리집사는 ‘서리집사’로 사용했으나, 지금은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는 ‘집사’로 쓰는 것이 옳습니다. 부를 때는 편하게 ‘집사’라고 불러도 좋으나 후보나 광고물, 공식적인 문서에는 구별해야 합니다.

항존직은 교회의 실질적인 일꾼입니다. 1만 명 안팎의 교인이 있는 주님의교회도 구석구석에서 일을 찾아 손에 물을 묻히는 헌신된 주님의 일꾼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마음이 있는 누구라도, 항존직으로 교회의 들보와 기둥이 되실 수 있습니다. 숨어있는 항존직 후보를 많이 추천하시고, 격려해 주세요! **함글함글**

교회에서 쓰는 말 바로잡기

성경에 나오는 단어

요나가 고래 뱃속에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식으로 해석해서 ‘고래’로 한정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성경 왜곡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성경(욥8:7)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인 빌닷이 고난받는 욥을 욕박지르면서,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니 회개하라며 한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엘리아 / 예레미야 / 느헤미야

엘리아와 엘리야,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어느 것이 맞을까요? ‘야’가 이스라엘 말로 ‘야웨’(하나님)이므로 엘리야, 예레미야, 느헤미야가 맞습니다. 바르게 발음하고 적어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경 강림의 현장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말하곤 하는데 잘못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단순히 “다락방”(행1:13) 혹은 “한 곳”(행2:1)이란 표현만 등장합니다. 기도 장소와 마가의 이름이 결부된 것과 관련해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행12:12)

유향 / 유황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 가운데 유향이 있습니다. 유향은 향료의 한 종류인데, 유향 나무의 줄기에 상처를 낸 다음 채취한 수지로 약재와 향료로 쓰입니다. 그런데 간혹 유향을 ‘유황’으로 잘못 발음하기도 합니다. 유황은 비금속 원소로 성냥이나 화약을 만드는 재료이니 전혀 다릅니다.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 책의 제목은 ‘말라기’(Malachi)입니다. 그런데 이를 ‘말라기’라고 발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출애굽기, 롯기, 욥기’의 영향이 아닌가 합니다. 이는 잘못입니다. ‘출애굽기, 롯기, 욥기’의 ‘기’는 ‘기록할 기’자를 사용해서 각각 ‘출애굽에 대한 기록’, ‘롯에 대한 기록’, ‘욥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이 되며, 앞의 받침에 따라 된소리되기에 의해 ‘끼’로 발음됩니다. 그러나 애초에 ‘말라기’는 ‘말라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람 이름이므로 ‘말라기’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6월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넘을 유, 넘을 월’자를 씁니다. 출애굽 당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갔다(Pass over) 해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함글함글 / 교회에서 쓰는 말 바로잡기(이복규, 새물결플러스) 참고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풀이

예레미야 편

이번 호는 <예레미야> 편입니다. <예레미야>의 저자는 기원전 6세기 무렵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멸시와 박해를 받으면서도 심판을 받을 것임을 선포했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480호 이사야 편 정답

아	하	스		고		히		에	바
		알		아	모	스			드
리	워	야	단			기	도		로
		숨		이	사	야		구	스
그	늘			스				덩	
루		고	모	라		소		이	름
터				엘	르	알	레		
기	묘	자			말		셉		선
			사	마	리	아			지
토	기	장	이		야		요	술	자

가로 힌트

1.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이 장을 기록한 선지자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는 전 과정을 지켜보았다. (렘 1:1)
2.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큰 강의 이름. 주변에는 바벨론이 있었고, 예레미야는 허리띠를 이 강 주변에 감추었다. (렘13:4)
5. 사람이 지닌 성격이나 생각, 감정, 심리 등을 두루 뜻하는 말. “예루살렘아 네 ○○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렘 4:14)
6. 장미과에 속하는 나무. 7월 무렵 노란 핵과인 살구가 열린다. (렘 1:11)
10. 가족이나 대나무로 만들어 화살을 넣는 통. 줄을 달아 등 뒤에 빗겨 매거나 허리에 매달았다. (렘 5:16)
11.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사람. 정치, 종교, 민족 등 분야마다 있을 수 있다. (렘 2:26)
13. 어떤 지역이나 시간을 거쳐서 지나감.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렘 2:6)
14. 유산 상속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갖고 있던 재산이나 권리를 그 사람이 죽은 뒤에 물려받은 사람을 말한다. (렘 49:1)
15. 모압에 있던 도시.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멸망을 예언했다. (렘 48:1)
16. 말과에 속하는 포유류. 말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몸이 작고 귀가 길다. 질병에 강하며 힘이 세서 예부터 가축으로 삼았다. 예수님이 이 동물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 (렘 22:19)
17. 남자 자식. 요셉은 야곱의 이가이다. (렘 15:4)
18. 지중해 연안에 있는 무역항. 지금의 스페인으로 추정되며, 금과 은 등 금속 공예물을 수출하던 곳이었다. (렘 10:9)
20. 압복강 상류에 있던 도시. 암몬의 수도였으며 선지자 예레미야와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렘 49:2)
21. 예루살렘 동남부 지역.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측량줄이 이를 곳이라고 설명했다. 부모가 없는 자식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렘 31:39)
23.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시대의 부제사장이었으며, 바벨론 장관 느부사라단에게 잡혀 죽었다. (렘 21:1)
24. 마세야의 아들. 선지자 예레미야를 섬겼던 서기 바룩과 스라야의 아버지였다. (렘 32:16)
26. 같은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같이하며 언어와 풍습이 같아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이 형성된 집단. '이스라엘○○', '배달○○' 등으로 쓰인다. (렘 15:4)
27.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부어 왕으로 삼았다. (렘 15:1)

세로 힌트

1. 이스라엘 민족의 도읍지. 다윗 때에 도읍지로 삼았다. 지금은 여러 종교의 성지로 꼽힌다. (렘 52:14)
3. 티그리스강 동편에 살던 아람 족속. 선지자들에 의해 바벨론과 함께 멸망될 것이라고 예언되었다. (렘 50:21)
4. 사해의 동북쪽에 있던 성읍. 이스마엘의 후손이 잘있던 지역이다. (렘 25:23)
7. 뽕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관목. 높이는 2~3미터이고 잎은 넓으며 겉으로 꽃이 보이지 않은 채 달걀 모양의 열매가 맺기 때문에 '꽃이 없이 열리는 과일'이라는 의미의 이름이 붙었다. (렘 8:13)
8. 총알이나 화살이 몸을 꿰뚫고 지나가서 생기는 부상. 또는 그렇게 만들어진 상처 부위를 말하기도 한다. (렘 51:4)
9.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이사야, 예레미야 등이 이런 사람이었다. (렘 6:13)
12. 어떤 사람들의 자식들. 딸과 아들을 함께 부를 때 쓰는 표현이다. (렘 9:21)
15. 바벨론의 2대 왕 느부갓네살의 내시장. 예레미야를 감옥 등에서 풀어내주었다. (렘 39:13)
18. 나일강 삼각주 동쪽에 있던 도시. 예레미야가 이곳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렘 44:1)
19. 여리고, 베엘, 기브온 등이 있던 지역. 예레미야가 속했던 지파의 땅이었다. (렘 17:26)
22. 아르논 강 중류에 있던 모압의 성읍. 예레미야가 멸망을 예언했다. (렘 48:19)
25. 르우벤 지파의 성읍. 요단강 동쪽에 있었다. (렘 48:21)

교회소식

장로회신학대학교 발전기금 전달

3월 12일(화), 주님의교회 김화수 담임목사와 부목사 및 장로들은 광진구에 있는 장로회신학대학교를 방문하여 발전기금을 전달하였다.

대회의실에서 김운용 총장, 신형섭 대외협력



처장과 환담을 나누었고 이어서 기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주님의교회는 1994년 마펫관, 예배당, 명성관, 소망관, 남생활관 등 건축 당시부터 꾸준히 학교를 위해 기부를 하였고 이후에도 석좌교수 기금 등 다양한 기회로 동역해 나가고 있다.

전달식 이후에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박물관과 도서관을 관람하며 대학교의 설립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둘러보고, 신학 교육과 복음전파를 위한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사명을 알아가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글함글(장로회신학대학교 장신 NEWS 참고)

창립 35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
심층분석 시리즈 1

새벽예배의 진실

지난해 실시한 창립35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는 2018년 설문조사 이후, 교회와 관련하여 지난 5년간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뜻깊었습니다. <함글함글> 477호(2023.12.31.)에 포괄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수록했지만, 교회의 현황과 미래를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호부터 설문조사팀의 주제별 심층분석을 연재합니다.

함글함글

첫 번째 심층분석은 예배, 그중에서도 새벽예배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새벽예배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교회사 자료에 의하면 새벽예배는 1890년대 기독교 전도 초기 여러 지역 교회 사경회 기간 새벽기도회에서 시작되었고, 1909년 길선주 목사의 장대현교회에서 교회 부흥의 기점이 되었으며, 1920년대 들어 매일 드리는 예배의 형태로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해가 뜨면 농사일이거나 노동일을 시작하던 당시 대부분의 가정에서 해 뜨기 직전이야말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여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예배'를 심층분석의 첫 번째 주제로 택했습니다.

주님의교회 2018년 설문조사에서 새벽예배에 매일 참석하는 분들은 7%였으며, 이 수치는 2023년에도 같았습니다. 다만 2018년과 2023년에 걸쳐 설문조사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는 9%로 늘었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신 기간이 길어지면서 새벽예배에 더 참석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령대로는 50~75세가 새벽예배 참석자의 7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7:3입니다. 남성은 66~75세에서 해당 연령대 인원 대비 가장 많은 11%의 참석률을 보이는데, 직장에서 은퇴한 후 새벽예배에 참석하는 분이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여성은 61~65세(16%), 66~75세(16%), 76세 이상(18%)을 보여, 자녀 양육이 끝난 후 참석

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까운 송파구와 강남구 거주자의 11%가 새벽예배에 참석하지만, 거리가 먼 경기도 분당·죽전·용인·평촌 지역 거주자가 오히려 더 높은 14%의 참석률을 보여, 교회와의 거리는 새벽예배 참석률과 비례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항존직의 경우 21%가 참석하여 비항존직(7%)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역부서 참여자의 경우 18%, 모태신앙 응답자는 9.5%로 나타났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경험한 응답자의 새벽예배 참석률(12%)은 경험하지 못한 응답자의 참석률(4%)의 3배에 이르렀습니다. 신앙 속에서 자신을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 응답자의 새벽예배 참석률(15%)은 그렇지 않다고 한 응답자의 참석률(9%)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주님의교회가 교인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의 참석률(15%)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인의 참석률(11%)보다 높았습니다. 교회의 목회 방향인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을 충분히 이해하는 교인(85%)의 참석률(12%)도 그렇지 않은 교인의 참석률(5%)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앙생활의 기간이 길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있으며, 교회의 미래에 공감하고, 교회 활동에 헌신적인 분들이 거주지와 거리와 관계없이 새벽예배에 더 많이 참석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팀

교회일정

3/17 (주일)	사순절5
3/24 (주일)	종려주일
3/25~30 (월-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3/29 (금)	성금요일
3/31 (주일)	부활주일
4/3 (수)	교구 연합 수요기도회(4교구)

알립니다

1. 겨자씨 인도자 모임 개강

일자 : 3/13, 27(수)

방식 : 온라인 교육(유튜브 영상 링크)

2. 수요일예배 시리즈 설교

일정 : 3/13, 3/20, 3/27(총3회)

설교 : 이종성 목사

주제 : 사랑안에서 길을 찾다

3. 봄맞이 교회 대청소

일시 : 3/30(토) 오전 6:30(고난주간 새벽기도회 후)

장소 : 교회 예배실 및 정신학교 주변
(지하식당에서 집합 후 시작)

• 2024 고난 주간 부활절 예배 안내 •

1. 온가족이 함께 하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일시 : 3/25(월)~3/30(토) 오전 5:20

장소 : 대예배실

주제 : 하나님의 눈 먼 사랑

강사 : 3/25(월)~27(수) : 김창근 목사(무학교회 원로)

3/28(목)~29(금) : 임성빈 목사(장신대교교수)

3/30(토) : 김화수 담임목사

2. 성금요일예배 : 3/29(금) 오후 7:20

3. 부활주일예배 : 3/31(주일)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주님의교회